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제18기
제1차 선진화 Dialogue
글로벌 경제전쟁, 생존을 넘어 승리로



2016. 7. 1.

김윤형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원장
미국 동서문화센터 수석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제18기 제1차 선진화 Dialogue 글로벌 경제전쟁, 생존을 넘어 승리로



2016. 7. 1.

김윤형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원장
미국 동서문화센터 수석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목 차

- I. 세계질서의 대변혁: 경제적 글로벌리제이션
- II. 글로벌 경제의 실상
- III.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
- IV. 글로벌 경제전쟁 판도에서 한국경제의 현실
- V.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I. 세계질서의 대변혁: 경제적 글로벌리제이션

문제의 제기

- 2010년 12월 28일 ~ 2013년 2월 진행되었던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파업사태를 계기로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음.
- 한진중공업 사태는 다국적기업이 값싼 인건비를 쫓아 해외로 조선회사를 이전할 경우 국내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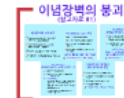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글로벌리제이션'이 많은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내포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글로벌리제이션'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화(globalization): 21세기 Mega Trend

- 지금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trend를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글로벌리제이션'의 현상임.
-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상품, 사람, 자본의 자유스러운 이동을 가로막아왔던 **이념장벽** (참고 자료 #1)과 **무역장벽** (참고자료 #2)이 무너졌음.
- 교통, 통신,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시,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 단일 경제권화가 되어 왔음.



1995년 이후 민족간의 새로운 대립양상

-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사이의 경제적 주도권 쟁탈전

무력 대결 → 자유시장 경제체제 내에서 경제력 대결



문제의 제기

- 2010년 12월 28일 ~ 2013년 2월 진행되었던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파업사태를 계기로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음.
- 한진중공업 사태는 다국적기업이 값싼 인건비를 쫓아 해외로 조선소를 이전할 경우 국내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글로벌리제이션'이 많은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내포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글로벌리제이션'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화(globalization): 21세기 Mega Trend

- 지금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trend을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글로벌리제이션'의 현상임.
-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상품, 사람, 자본의 자유스러운 이동을 가로막아왔던 **이념장벽 (참고 자료 #1)**과 **무역장벽 (참고자료 #2)** 이 무너졌음.
- 교통, 통신,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시,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 단일 경제권화가 되어 왔음.

이념장벽의 붕괴 (참고자료 #1)

세계질서의 전개과정 ● Pax Britannica 1875 - 1914 ● Pax Americana 1945 - 1991 ● 21세기 세계의 패권과 패권 경쟁의 도전	Pax Britannica의 부활 ● 19세기 중반 이후에 시작된 Pax Britannica의 부활 ● 19세기 중반 이후에 시작된 Pax Britannica의 부활 ● 19세기 중반 이후에 시작된 Pax Britannica의 부활	1990년대 세계질서가 있는 시대 ● 1990년대 세계질서의 붕괴 ● 1990년대 세계질서의 붕괴 ● 1990년대 세계질서의 붕괴
--	---	--

무역장벽의 붕괴 (참고자료 #2)

GATT 1947-1994 ● GATT 1947-1994 ● GATT 1947-1994 ● GATT 1947-1994	Uruguay Round 협상 ● 1986년 9월에 Uruguay에서 GATT 1947-1994를 개정하여 GATT 1994로 개정 ● 1986년 9월에 Uruguay에서 GATT 1947-1994를 개정하여 GATT 1994로 개정 ● 1986년 9월에 Uruguay에서 GATT 1947-1994를 개정하여 GATT 1994로 개정
---	---

이념상벽의 붕괴

(참고자료 #1)

세계질서의 전개과정

- ① Pax Romana (BC 27 ~ AD 395):
서구에서 최초의 세계질서
- ② Pax Britannica (1815~1914):
대영제국에 의한 세계질서
- ③ 미·소 패권 경쟁 (1945년~1991년)
- ④ 21세기 미국의 패권유지와 중국의 도전

Pax Britannica의 부침

- 힘의 기초: 해군력과 산업생산력
 - 이념: 의회민주주의/금본위제/자유무역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상실
 - 1931년 금본위제 이탈, 1932년 Sterling Bloc 형성
- 한반도 둘러싼 패권 다툼-구한말
- ⇒ 영국의 거문도 점령 (1885~1887)

1930년대: 세계질서가 없는 시대

- 세계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교역장벽의 구축, 보호무역주의적 무역Bloc형성
- 국가간 경제장벽⇒ 군사장벽⇒ 제2차 세계대전

1945년 이후: 미·소 두 군사초강대국의 패권 다툼의 양극화 체제

- ⇒ 분단과 6.25 전쟁

Pax Americana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유세계질서)의 완성

- 힘의 요소: 군사력과 경제력
- 이념: 미국식 민주주의, GATT/IMF체제에 의한 자유무역
- 국제기구의 창설
 - 금·달러 본위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통화제도인 Bretton Woods 체제의 확립(1944.7)
 - 세계은행(1946.8)과 IMF(1945.12)의 발족
 - UN의 창설(1945)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체제의 수립(1947)

구주사회의 지각변동과 세계냉전체제의 종결

- ① Gorbachev의 Perestroika출범(1985년)
 - ② 동구의 연쇄시민혁명개혁과 Berlin장벽 붕괴 (1989)
 - ③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 통일(1990)
 - ④ 구 소련연방의 해체(1991)
- ⇒ 미국이 유일한 세계 군사초강대국

세계질서의 전개과정

- ① Pax Romana (BC 27 ~ AD 395):
서구에서 최초의 세계질서
- ② Pax Britannica (1815~1914):
대영제국에 의한 세계질서
- ③ 미·소 패권 경쟁 (1945년~1991년)
- ④ 21세기 미국의 패권유지와 중국의 도전

Pax Britannica의 부침

- 힘의 기초: 해군력과 산업생산력
- 이념: 의회민주주의/금본위제/자유무역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상실
- 1931년 금본위제 이탈, 1932년 Sterling Bloc 형성

한반도 둘러싼 패권 다툼-구한말



영국의 거문도 점령 (1885~1887)

1930년대: 세계질서가 없는 시대

- 세계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교역장벽의 구축, 보호무역주의적 무역Bloc형성
- 국가간 경제장벽⇒ 군사장벽⇒ 제2차 세계대전

1945년 이후:
미·소 두 군사초강대국의
패권 다툼의 양극화 체제



분단과 6.25 전쟁

Pax Americana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유세계질서)의 완성

- 힘의 요소: 군사력과 경제력
- 이념: 미국식 민주주의, GATT/IMF체제에 의한 자유무역
- 국제기구의 창설
 - 금·달러 본위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통화제도인 Bretton Woods 체제의 확립(1944.7)
 - 세계은행(1946.8)과 IMF(1945.12)의 발족
 - UN의 창설(1945)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체제의 수립(1947)

구주사회의 지각변동과 세계냉전체제의 종결

- ① Gorvachev의 Perestroika출범(1985년)
- ② 동구의 연쇄시민혁명개혁과 Berlin장벽 붕괴(1989)
- ③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 통일(1990)
- ④ 구 소련연방의 해체(1991)
- ➡ 미국이 유일한 세계 군사초강대국

무역장벽의 붕괴

(참고자료 #2)

GATT, BRETTON WOODS체제의 대 동요와 새로운 교역질서의 모색 (1970년대 이후)

- 일본, 서독, 신흥공업국의 산업생산력 급신장
- 미국에 의한 곡물의 수출규제(1972), 석유Shock(1973, 1979)
 - ⇒ 세계무역은 자유라고 하는 '대 원칙'에 타격
- 선진제국에서 1970년대의 저성장, 실업과 80년대 초의 장기불황, 경기침체, 무역불균형
 - ⇒ 경쟁적으로 신보호주의의 채택:
OECD국가 상호간 그리고
NIEs에 대한 관리무역의 범위확대:
인접국가들간에 배타적 경제Bloc의 형성
- GATT체제의 퇴조
 - 다원주의의 대안으로 지역주의 추구
 - 세계교역대상이 금융, 통신, 해운서비스, 지적 재산권까지 다양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 공산품 위주의 현 GATT규범의 실효성 상실

Uruguay Round협상

- 1986년 9월에 Uruguay에서
GATT회원국들이 기존의 GATT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협상 출범

새로운 세계교역질서의 대두

- ① 1993년 12월 Uruguay Round 협상의 타결
- ② 1994년 4월 모로코 Marrakesh의 117개국
통상장관회의에서 UR협정 조인
 - 세계교역질서의 새로운 규범: 무역의 자유화
 - 다자간 교역규범의 개혁: 반 덤핑 협정, 수출보조금, 수출자율규제의 금지
 - 세계교역규범의 적용범위 확대: 농산물교역,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규제, 환경

새로운 세계교역질서의 대두 (계속)

- ③ 1995년 이후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기구
 - ⇒ 동일한 경제규범 하에서 경쟁해야 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경제적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요구
- ④ 2001년 이후 도하 개발 라운드 (Doha Development
Agenda: DDA)
 -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 153 개국 참여
 - ⇒ 이해관계충돌
- ⑤ 세계무역 '두 나라 간 시대': 미국 중심으로 양자 FTA 추진
 -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의 공간 위축

GATT, BRETTON WOODS체제의 대 동요와 새로운 교역질서의 모색 (1970년대 이후)

- 일본, 서독, 신흥공업국의 산업생산력 급신장
- 미국에 의한 곡물의 수출규제(1972), 석유Shock(1973, 1979)
- ➡ 세계무역은 자유라고 하는 ‘대 원칙’에 타격
- 선진제국에서 1970년대의 저성장, 실업과 80년대 초의 장기불황, 경기침체, 무역불균형
- ➡ 경쟁적으로 신보호주의의 채택;
OECD국가 상호간 그리고
NIEs에 대한 관리무역의 범위확대;
인접국가들간에 배타적 경제Bloc의 형성
- GATT체제의 퇴조
 - 다원주의의 대안으로 지역주의 추구
 - 세계교역대상이 금융, 통신, 해운서비스, 지적 재산권까지 다양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 공산품 위주의 현 GATT규범의 실효성 상실

Uruguay Round협상

- 1986년 9월에 Uruguay에서
GATT회원국들이 기존의 GATT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협상 출범

새로운 세계교역질서의 대두

- ① 1993년 12월 Uruguay Round 협상의 타결
- ② 1994년 4월 모로코 Marrakesh의 117개국 통상장관회의에서 UR협정 조인
 - 세계교역질서의 새로운 규범: 무역의 자유화
 - 다자간 교역규범의 개혁: 반 덤핑 협정, 수출보조금, 수출자율규제의 금지
 - 세계교역규범의 적용범위 확대: 농산물교역,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규제, 환경

새로운 세계교역질서의 대두 (계속)

- ③ 1995년 이후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기구

➡ 동일한 경제규범 하에서 경쟁해야 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경제적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요구

- ④ 2001년 이후 도하 개발 라운드 (Doha Development Agenda: DDA)

-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 153 개국 참여

➡ 이해관계충돌

- ⑤ 세계무역 '두 나라 간 시대': 미국 중심으로 양자 FTA 추진

-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의 공간 위축

1995년 이후 민족간의 새로운 대립양상

-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사이의 경제적 주도권 쟁탈전

무력 대결 → 자유시장 경제체제 내에서 경제력 대결

Globalization (원심적 힘)과
Regionalization (구심적 힘)의 상호작용

지구촌 단일경제권화 가속화

- [illegible]

Globalization의 역동성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통합 촉진

- **지역별의 목적**
 - **삼릉** - 자연·인적의 지역 내 자원에 대한 인식을 환기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과 국민적 인식 추고
 - **금강산** 사자에서 7개국경의 장엄과 교섭성과 정책 자주권 견인
 - **국사 독립전쟁의장**의 사적경관을 다룬다는는 성역이제목을 역누르고 교양할 수 있는 일대적 장려수단
- **세계에 내거는 주요도 지역 목록**
 - **유럽연합(EU)**(1993년) : **해방된 지역 블록**, 같은 문화
 - **미국** : **미국**(1993년) : **해방된 지역 블록**, 같은 문화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994년) : **해방된 지역 블록**
 - **대한경제협력개발기구(APEC)**(1989년) : **공간의 지역블록**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의 도래

- ⑤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계기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상 움직임
- ⑥ 1998년 12월 동아시아에서 ASEAN+1(2)으로 정교화 진행됨
- ⑦ 2005년 일본의 아사히와 동양경제의 (East Asia Economic Community)와 같은 대내외적으로 논의가 다시 일어남 → 아시아에서의 중국-한국 관계는 틀어짐
→ 아시아의 새로운 협정 필요
- ⑧ 2008년 글로벌 위기, 미국을 제쳐두고 유럽, 세계 경제를 살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다
- ⑨ 2009년 동아시아에서 APTA와 ASAC 중첩의 역할이 부각됨 → 동아시아 협회 필요
- ⑩ 2012, 중국의 ‘One Belt, One Road’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발표
- ⑪ 2016.2.29, 한국과 인도네시아인 인프라 투자자 모임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출범
- ⑫ 2015.10.15, 파리의 유엔 기후 변화 정상회담에서 파리협정(TPP) 체결 합의
- ⑬ 2015년 12월 21일 ASEAN Economic Community(AEC) 출범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s AIB Initiative



The U.S. "Trans-Pacific Partnership(TPP)" Initiative

- 2013년 11월 일본이 TPP 참가 선언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칠레, 브루나이, 카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다국간 FTA 마블 (2015년 10월 5일)
- 사실상 마블 FTA에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 출현
-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영향 유지 위한 미국중심의 TPP 참가

기업활동 국제화의 세 가지 국면

- ① 제1국면 (1950년대와 60년대):
 - 한국에서 GATT 협정으로 무역개방주의 정책의 변화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각국 경제의 패러다임의 전환
 - ② 제2국면 (1970년대와 80년대):
 - 1970년대: 석유위기 → 호황과 인플레이션의 돌풍
 - 1980년대: Reagan과 Thatcher의 자유 시장 경제의 규제완화, 자유화, 개방화. 일본의 지속적인 무역수지흑자
-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이슈
- ③ 제3국면 (1990년대 이후):
 - 냉전 종결과 무역장벽의 철폐와 시장 개방의 확대로 제국은 단일 시장으로 통합
 -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외국인 투자자의 급증으로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 강화

Globalization (원심적 힘)과 Regionalization (구심적 힘)의 상호작용

지구촌 단일경제권화 가속화

- 1980년대 들어와 선진국의 시장규제철폐
 - 1990년대에 들어와 이념·무역 장벽의 붕괴, 교통·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사·공간 제약으로 부터 해방
 - 국가간 상품·사람·자본의 자유스러운 이동
 - 금융시장의 범 세계화
 - 세계금융center의 연결로 각국의 저축이 하나의 '저장소'로 모이게 된 셈이며, 예금과 대출이 국경을 넘어 연결되고 있음
- ① 최고품질의 상품을 최저가격으로 단시일 내에 설계하고 생산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세계일류 기업만이 생존
 - ② 세계경제의 깊은 통합과 상호의존성 촉진
 - ③ 국가경제정책의 자주권 축소
 - ④ 기득권에 대한 고조된 불확실성과 불안정

Globalization의 역동성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통합 촉진

- 지역화의 목적
 - ① 상품·자본·인력의 지역 내 이동에 대한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가맹국들의 성장과 국력신장 추구
 - ② 글로벌 시장에서 가맹국들의 집단적 교섭력과 정책 자주권 강화
 - ③ 국내 특별이익집단의 시장경쟁력을 저해하는 성장억제력을 억누르고 조정할 수 있는 집단적 정책수단
- 세계의 네 가지 주도적 지역 블록
 - ① 유럽연합(EU)(1993): 폐쇄된 지역 블록, '깊은' 통합
 - ② 남미 국가연합(UNASUR)(2008): 폐쇄된 지역 블록, '깊은' 통합
 - ③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992): 폐쇄된 지역 블록
 - ④ 아태경제협력체(APEC)(1989): 공개된 지역블록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의 도래

- ①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설 움직임
- ② 1998년 12월 하노이에서 AEAN+3(APT) 정상회의의 정례화
- ③ 2005년 일본의 주도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설립과정에서 아태지역의 노선과 아시아 중시 지역주의간의 중국견제를 둘러싼 갈등
 -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 관심 저하
- ④ 2008년 금융위기, 미국경제 헤게모니의 추락, 세계경제의 성장 축소로서 동아시아의 급부상
 - 중국과 일본은 각각 APT와 EAS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회귀
- ⑤ 2013, 중국의 'One Belt, One Road'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정책
- ⑥ 2015.6.29, 중국의 주도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출범
- ⑦ 2015.10.15, 미국의 주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 타결
- ⑧ 2015년 12월 31일 ASEAN Economic Community(AEC) 출범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s AIIB Initiative



The U.S. "Trans-Pacific Partnership(TPP)" Initiative

- 2013년 11월 일본이 TPP 참가 선언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FTA 타결 (2015년 10월 5일)
- 사실상 마·일 FTA로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 출현
-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일 동맹 유지 위한 미국중심의 TPP 참가



기업활동 국제화의 세 가지 국면

- ① 제1국면 (1950년대와 60년대):
 - 계속적인 GATT협상으로 무역보호주의 장벽의 단계적 완화
 - 세계무역 증대에 따라 각국경제의 해외 의존도 점증
- ② 제2국면 (1970년대와 80년대):
 - 1970년대: 석유파동 ⇒ 오일머니의 환류
 - 1980년대: Reagan미국대통령과 Thatcher영국수상의 규제철폐와 사유화혁명: 일본의 대폭적인 무역수지흑자
 - 금융통합의 물결 가속화
- ③ 제3국면 (1990년대 이후): 글로벌리제이션 (범세계화)
 - 이념장벽과 무역장벽의 붕괴와 시공간 제약의 해방으로 지구촌 단일 경제권화
 -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 가속화

지구촌 단일경제권화 가속화

- 1980년대 들어와 선진국의 시장규제철폐
- 1990년대에 들어와 이념·무역 장벽의 붕괴, 교통·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시·공간 제약으로 부터 해방



국가간 상품·사람·자본의 자유스러운 이동

- 금융시장의 범 세계화



세계금융center의 연결로 각국의 저축이 하나의 '저장소'로 모이게 된 셈이며, 예금과 대출이 국경을 넘어 연결되고 있음

①

최고품질의 상품을 최저가격으로 단시일 내에 설계하고 생산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세계일류 기업만이 생존

②

세계경제의 깊은 통합과 상호의존성 촉진

③

국가경제정책의 자주권 축소

④

기득권에 대한 고조된 불확실성과 불안정

Globalization의 역동성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통합 촉진

● 지역화의 목적

- ① 상품 · 자본 · 인력의 지역 내 이동에 대한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가맹국들의 성장과 국력신장 추구
- ② 글로벌 시장에서 가맹국들의 집단적 교섭력과 정책 자주권 강화
- ③ 국내 특별이익집단의 시장경쟁력을 저해하는 성장억제력을
억누르고 조정할 수 있는 집단적 정책수단

● 세계의 네 가지 주도적 지역 블록

- ① 유럽연합(EU)(1993): 폐쇄된 지역 블록, '깊은' 통합
- ② 남미 국가연합(UNASUR)(2008): 폐쇄된 지역 블록, '깊은' 통합
- ③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992): 폐쇄된 지역 블록
- ④ 아태경제협력체(APEC)(1989): 공개된 지역블록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의 도래

- ①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설 움직임
- ② 1998년 12월 하노이에서 ASEAN+3(APT) 정상회의 정례화
- ③ 2005년 일본의 주도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설립과정에서 아태지역의 노선과 아시아 중시 지역주의간의 중국견제를 둘러싼 갈등
 - ⇒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 관심 저하
- ④ 2008년 금융위기, 미국경제 헤게모니의 추락, 세계경제의 성장 축소로서 동아시아의 급부상
 - ⇒ 중국과 일본은 각각 APT와 EAS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회귀
- ⑤ 2013. 중국의 'One Belt, One Road'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정책
- ⑥ 2015.6.29. 중국의 주도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출범
- ⑦ 2015.10.15. 미국의 주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 타결
- ⑧ 2015년 12월 31일 ASEAN Economic Community(AEC) 출범

The U.S. "Trans-Pacific Partnership(TPP)" Initiative

- 2013년 11월 일본이 TPP 참가 선언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FTA 타결 (2015년 10월 5일)
- 사실상 미·일 FTA로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 출현
-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일 동맹 유지 위한 미국중심의 TPP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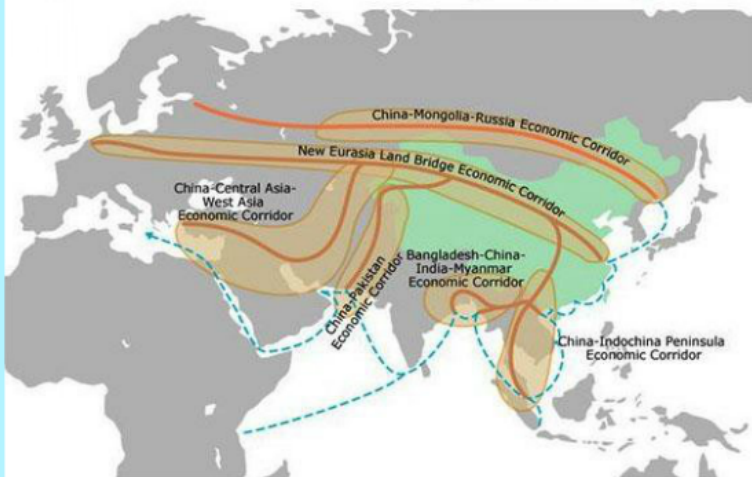
TPP Configuration May, 2013



자료: Center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ix Economic Corridors Spanning Asia, Europe and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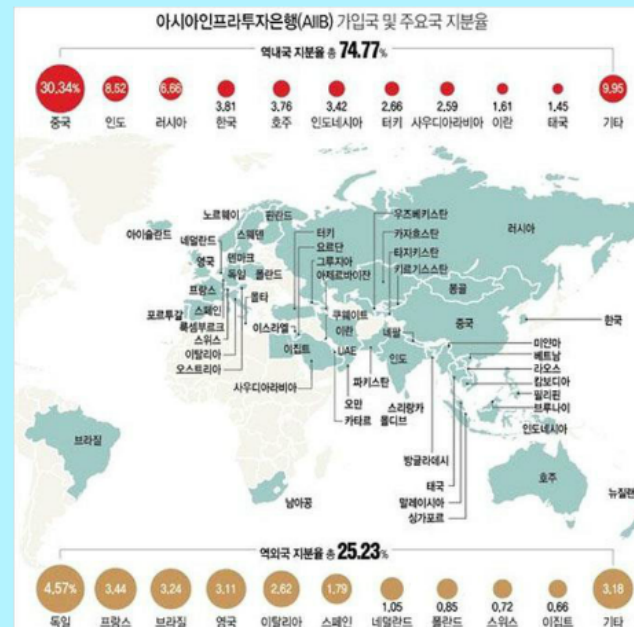


자료: HKT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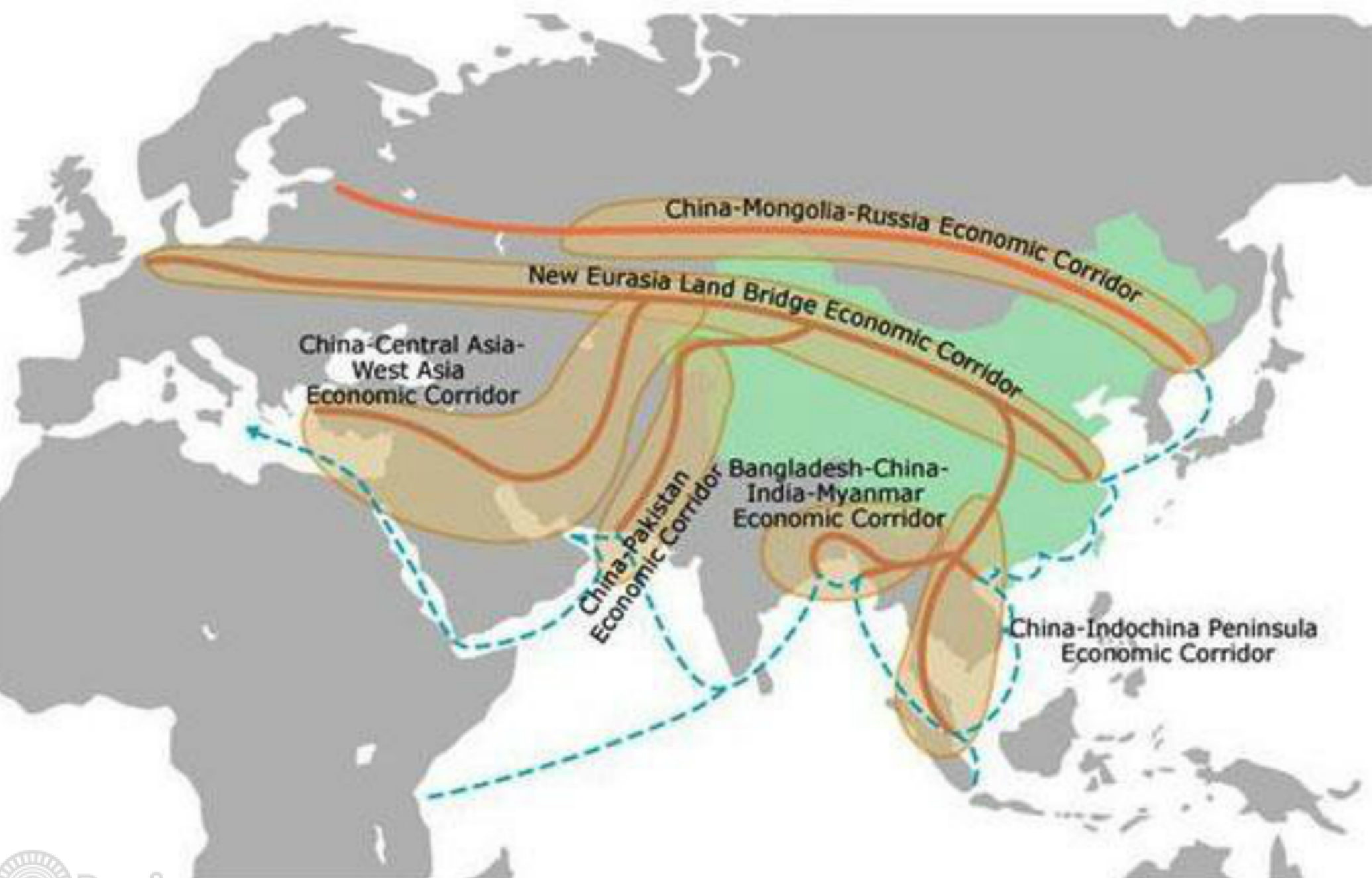
자료: Xinhua Net

China's AIIB Initiative



자료: 기획재정부, 로이터 연합뉴스 2015.6.29.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ix Economic Corridors Spanning Asia, Europe and Africa



The land route starts at China's Luoyang and terminates at Port of Hamburg, Germany.



The maritime route begins at China's Quanzhou and terminates at Dutch city of Rotterdam.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국 및 주요국 지분율

역내국 지분율 총 **74.77%**



역외국 지분율 총 **25.23%**



기업활동 국제화의 세 가지 국면

① 제1국면 (1950년대와 60년대):

- 지속적인 GATT협상으로 무역보호주의 장벽의 단계적 완화
- 세계무역 증대에 따라 각국경제의 해외의존도 점증

② 제2국면 (1970년대와 80년대):

- 1970년대: 석유파동 ⇒ 오일머니의 환류
- 1980년대: Reagan미국대통령과 Thatcher영국수상의 규제철폐와 사유화혁명; 일본의 대폭적인 무역수지흑자



금융통합의 물결 가속화

③ 제3국면 (1990년대 이후): 글로벌리제이션 (범세계화)

- 이념장벽과 무역장벽의 붕괴와 시공간 제약의 해방으로 지구촌 단일 경제권화
-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 가속화

II. 글로벌 경제의 대두

글로벌 경제의 실상

- 지금, 세계경제 가운데에서는 **정보·자본·기업·인재** 등 글로벌 경제의 **네 가지 핵심적 경영자원**이 마치 우리의 인체 속에 혈액과 같이 순환하고 있음.
- 핵심적 경영자원이 원활히 순환하지 못하는 지역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로부터 격리되어 도태
- 국경의 의미는 멀어지며 국가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일부로 편입
- 국경을 초월 하여 네 가지 핵심요소의 자유스러운 순환을 지배하는 법칙이 바로 **세계 스탠다드**이고 **글로벌 경제의 논리**임.
-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글로벌경제의 논리에 대하여 자국의 제도를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가 하는 **시스템의 전쟁**임.

외국인 직접투자

- 글로벌 경제의 핵심경영자원은 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수반하여 FDI유치국가에 유입되고 있음.
- FDI의 세계적 배치는 다국적기업(MNC, Multinational Corporation)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음.
- 지구촌 단일경제권화가 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격렬한 경쟁에 살아 남기 위하여 다국적기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에 전문화하고 기타 기업활동 분야를 **상계 R&D, 자재물류공급, 조립, 마케팅, 유통, 금융서비스** 등 여러 기능으로 분할하고 세계 각 국 중 각 기능에 가장 알맞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에 그 기능을 배치하고 있음.
-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은 다국적 기업들이 구축한 **글로벌 가치 사슬 (global Value Chain)**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한 나라가 이 같은 점점 더 상호 연결된 **반세계적 부가가치 창출 네트워크**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그 나라가 부가가치의 창출에 유리한 기업활동여건을 갖추었는지에 의해 결정됨.
- 종래에는 수출을 통하여 국가경제가 상호 경쟁하였다면, 글로벌화로 각 나라의 지적 기반은 물론이고 **기업지배제도, 금융제도, 협동제도, 노사관계, 이민법 등 법 제도와 전통문화**까지마저도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임.

글로벌 시대의 특성

- ① 민족주의는 약해지고 지역주의와 글로벌화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음.
- ② 범 세계화로 시장은 국내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변화함.
- ③ 한국 영토내의 기업도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수 많은 다국적 기업들로 구성
- ④ 국가경제는 글로벌경제의 일부로 편입됨.
- ⑤ 전 세계가 **FDI 유치하는 글로벌경쟁**에 몰입하고 있으며, 각국이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가장 매력적인 전략을 경쟁적으로 설계하고 있음.

글로벌 경제의 실상

- 지금, 세계경제 가운데에서는 정보·자본·기업·인재 등 글로벌 경제의 네 가지 핵심적 경영자원이 마치 우리의 인체 속에 혈액과 같이 순환하고 있음.
- 핵심적 경영자원이 원활히 순환하지 못하는 지역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로부터 격리되어 도태
- 국경의 의미는 줄어들며 국가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일부로 편입
- 국경을 초월 하여 네 가지 핵심요소의 자유스러운 순환을 지배하는 법칙이 바로 세계 스탠다드이고 글로벌경제의 논리임.
-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글로벌경제의 논리에 대하여 자국의 제도를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가 하는 시스템의 전쟁임.

외국인 직접투자

- 글로벌 경제의 핵심경영자원은 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수반하여 FDI유치국가에 유입되고 있음.
- FDI의 세계적 배치는 다국적기업(MNC, Multinational Corporation)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음.
- 지구촌 단일경제권화가 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격렬한 경쟁에 살아 남기 위하여 다국적기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에 전문화하고 기타 기업활동 분야를 설계, R&D, 자재부품공급, 조립, 마케팅, 물류, 금융서비스 등 여러 기능으로 분할하고 세계 각 국 중 각 기능에 가장 알맞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에 그 기능을 배치하고 있음.
-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은 다국적 기업들이 구축한 '글로벌 가치 사슬 (global Value Chain)'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한 나라가 이 같은 점점 더 상호 연결된 범세계적 부가가치 창출 네트워크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그 나라가 부가가치의 창출에 유리한 기업활동여건을 갖추었는지에 의해 결정됨.
- 종래에는 수출을 통하여 국가경제가 상호 경쟁하였다면, 글로벌화로 각 나라의 지적 기반은 물론이고 기업지배제도, 금융제도, 행정제도, 노사관계, 이민법 등 법·제도와 전통문화가치마저도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임.

글로벌 시대의 특성

- ① 민족주의는 약해지고 지역주의와 글로벌화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음.
- ② 범 세계화로 시장은 국내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변화함.
- ③ 한국 영토내의 기업도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수 많은 다국적 기업들로 구성
- ④ 국가경제는 글로벌경제의 일부로 편입됨.
- ⑤ 전 세계가 FDI 유치하는 글로벌경쟁에 몰입하고 있으며, 각국이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가장 매력적인 전략을 경쟁적으로 설계하고 있음.

III.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에 둘러싼 글로벌 전쟁

FDI의 세계적 배치

- 다국적기업이 FDI를 배치하는 기준
 - ① 강력한 개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
 - ②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이 있다는 것
 - ③ 부품공급이 원활하다는 것
 - ④ 현지에서 우수한 경영staff가 있고 그들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
 - ⑤ 현지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이라는 것
-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

투자대상국가가 다국적기업의 핵심역량에 보완적인 유효한 경영자원(기술혁신 능력, 숙련, 인프라, 자재-부품 공급자, 경쟁자, 구매자, 특송-종합물류업체, 각종 지원제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임.
- 보완적인 경영자원들이 마치 개개의 포도 알이 모여 포도송이(cluster)를 이루듯이 서로 한 지역에 밀집되게 모여 이른 산업군락(industrial cluster)으로 FDI가 몰리고 있음.

산업 클러스터의 개발·창출

- 세계 각국은 여타국가와 경쟁적으로 FDI 유치에 보완적인 산업 cluster를 자국 특유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개발·창출하고 있음.
- 이것이 바로 21세기 글로벌경제시대에 있어서 국가간의 경제전쟁의 실태인 것임.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FDI가 집중화되고 있는 이유도 산업cluster라고 하는 세계경제의 기술혁신중심지가 주로 선진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
- 다국적기업의 R&D활동은 이들 기술혁신중심지인 cluster에 입지하고 있음.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핵심 생산 공정기술의 창출과 협력이 점점 더 각 cluster를 상호 연결하는 글로벌기술 network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21세기적 변영의 모형

-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미국을 필두로 변영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본이나 인재를 망설이지도 않고 수입하고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에게 자국내의 고용창출을 거둬들여 하고 경제발전의 속진하고 있음.
- 21세기적 변영의 모형이며, 올바른 글로벌경제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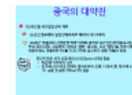
2015 국가별 GDP 순위 상위 10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GDP (백만 달러)
1	미국	16,719,000
2	중국	7,439,000
3	독일	3,700,000
4	일본	3,681,000
5	영국	2,739,000
6	프랑스	2,705,000
7	한국	1,621,000
8	이탈리아	1,580,000
9	캐나다	1,471,000
10	러시아	1,459,000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2015년 10월

중국: 글로벌 경제의 "총아"

- 글로벌경제의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헤아려 알고 다국적 기업의 힘을 빌려서 자국경제의 catch-up과 건설, 그 위에는 약진으로 연결하고 있음. 세계 도처에 넓히고 있는 기술이나 자금을 얻가고 양질의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에 의해서 끌어들이고 변영을 자석과 같이 빨아 당기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불러들여 견고한 산업기반마저도 만들어 내고 있음.



FDI의 세계적 배치

- 다국적기업이 FDI를 배치하는 기준

- ① 강력한 개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
- ②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이 있다는 것
- ③ 부품공급이 원활하다는 것
- ④ 현지에 우수한 경영staff가 있고 그들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
- ⑤ 현지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이라는 것

-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

투자대상국가가 다국적기업의 핵심역량에 보완적인 윤택한 경영자원(기술혁신 능력, 숙련, 인프라, 자재·부품 공급자, 경쟁자, 구매자, 특송·종합물류업체, 각종 지원제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임.

- 보완적인 경영자원들이 마치 개개의 포도 알이 모여 포도송이(cluster)를 이루듯이 서로 한 지역에 밀집되게 모여 이룬 산업군락(industrial cluster)으로 FDI가 몰리고 있음.

산업 클러스터의 개발·창출

- 세계 각국은 여타국가와 경쟁적으로 FDI 유치에 보완적인 **산업 cluster**를 **자국 특유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개발·창출하고 있음.
- 이것이 바로 21세기 글로벌경제시대에 있어서 국가간의 경제전쟁의 실태인 것임.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FDI가 집중화되고 있는 이유도 산업cluster라고 하는 **세계경제의 기술혁신중심지**가 주로 선진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
- 다국적기업의 R&D활동은 이들 기술혁신중심지인 cluster에 입지하고 있음.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핵심 생산 공정기술의 창출과 협력이 점점 더 각 cluster를 상호 연결하는 **글로벌 기술 network**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산업 군락(Cluster)



IT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숙련과 지식을 축적한 150개 이상의 첨단 기업들이 전 세계로 부터 Silicon Valley로 모여들어 산업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21세기적 번영의 모형

-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미국을 필두로 번영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본이나 인재를 망설이지도 않고 수입하고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에게 자국내의 고용창출을 거들게 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21세기적 번영의 모형이며, 올바른 글로벌경제의 실태.



선진경제권	962,496
개발경제권	764,670
EU	439,458
- 프랑스	(42,883)
- 영국	(39,533)
- 독일	(31,719)
미국	379,894
이스라엘	11,566
일본	-2,250
한국	5,042
중국	314,409
세계 총계	1,762,155

자료: World Investment Report 2016, UNCTAD



2015 국가별 FDI 유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선진경제권	962,496
개발경제권	764,670
EU	439,458
- 프랑스	(42,883)
- 영국	(39,533)
- 독일	(31,719)
미국	379,894
이스라엘	11,566
일본	-2,250
한국	5,042
중국	314,409
세계 총계	1,762,155



2015 국가별 FDI 유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선진경제권	962,496
개발경제권	764,670
EU	439,458
- 프랑스	(42,883)
- 영국	(39,533)
- 독일	(31,719)
미국	379,894
이스라엘	11,566
일본	-2,250
한국	5,042
중국	314,409
세계 총계	1,762,155

중국: 글로벌 경제의 "총아"

- 글로벌경제의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헤아려 알고 다국적 기업의 힘을 빌려서 자국경제의 catch-up과 건설, 그 위에는 약진으로 연결하고 있음. 세계 도처에 넘치고 있는 기술이나 자금을 염가이고 양질의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에 의해서 끌어들이고 번영을 자석과 같이 빨아 당기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불러들여 견고한 산업기반마저도 만들어 내고 있음.

중국의 대약진

- FDI주도형 국가발전전략 채택

- 1992년 등소평의 남방강화이레로 최대의 FDI 수혜자

- 1998년 "주공지의 지방분권 혁명"이레로 중국의 6대 연안지역(동북3성, 북경-천진 회랑, 산둥반도, 양자강 '델타', 복건성, 주강 '델타')은 저마다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FDI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격렬한 경쟁.



연안지역에 6대 산업 클러스터(Cluster)군락) 창출

- 독립한 지역국가 규모
- 인구와 GDP규모 면에서 동아시아의 상위 10개국 중 반수의 4~5개 국을 중국의 지역국가가 점유

도1: 중국의 6대경제지역



중국의 대약진

● FDI주도형 국가발전전략 채택

- ① 1992년 등소평의 남방강화이래로 최대의 FDI 수혜자
- ② 1998년 “주룽지의 지방분권 혁명”이래로 중국의 6대 연안지역(동북3성, 북경·천진 회랑, 산둥반도, 양자강 ‘델타’, 복건성, 주강 ‘델타’)은 저마다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FDI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격렬한 경쟁.



연안지역에 6대 산업 클러스터(Cluster·군락) 창출

- 독립한 지역국가 규모
- 인구와 GDP규모 면에서 동아시아의 상위 10개국 중 반수의 4~5개 국을 중국의 지역국가가 점유

도1: 중국의 6대경제지역



도2: 6대 산업 클러스터의 특성

- ① 동북3성(대련, 심양 등) 지역:
 - 중공업, 하이테크 분야 간접업무기능의 집적지;
 - 인구: 1억700만명
- ② 북경·천진 회랑:
 - 하이테크 분야, IT산업의 연구·개발 거점의 집적지,
 - 특히 북경의 중관촌 지역은 '세계의 R&D센터'로 발전;
 - 인구: 9,100만명
- ③ 산둥반도 (청도, 연태) 지역:
 - 냉동식품, 가공식품에 특화된 생산집적지;
 - 인구: 9,100만명
- ④ 양자강 델타(상해, 소주, 항주) 지역:
 - IT산업 집적지, 생명공학, 반도체, 디지털 가전산업 집적지;
 - 인구: 1억3,800만명
- ⑤ 복건성 (하문, 복주):
 - 식품공업 생산집적지;
 - 인구: 3,500만명
- ⑥ 주강 델타 (심수, 광주, 동관) 지역:
 - 세계최대 PC산업 집적지, 백색 가전산업 집적지, 조명기기의 세계적 생산집적지,
 - supply chain을 구비한 부품산업의 집적지;
 - 인구: 8,600만명

도2: 6대 산업 클러스터의 특성

- ① 동북3성(대련, 심양 등) 지역:
 - 중공업, 하이테크 분야 간접업무기능의 집적지;
 - 인구: 1억700만명
- ② 북경·천진 회랑:
 - 하이테크 분야, IT산업의 연구·개발 거점의 집적지, 특히 북경의 중관촌 지역은 '세계의 R&D센터'로 발전;
 - 인구: 9,100만명
- ③ 산둥반도 (청도, 연태) 지역:
 - 냉동식품, 가공식품에 특화한 생산집적지;
 - 인구: 9,100만명
- ④ 양자강 델타(상해, 소주, 항주) 지역:
 - IT산업 집적지, 생명공학, 반도체, 디지털 가전산업 집적지;
 - 인구: 1억3,800만명
- ⑤ 복건성 (하문, 복주):
 - 식품공업 생산집적지;
 - 인구: 3,500만명
- ⑥ 주강 델타 (심수, 광주, 동관) 지역:
 - 세계최대 PC산업 집적지, 백색 가전산업 집적지, 조명기기의 세계적 생산집적지, supply chain을 구비한 부품산업의 집적지;
 - 인구: 8,600만명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제18기 제1차 선진화 Dialogue 글로벌 경제전쟁, 생존을 넘어 승리로



2016. 7. 1.

김윤형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원장
미국 동서문화센터 수석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